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6년 ‘공급측개혁’의 평가 및 2017년 전망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개요
2. 2016년 평가
3. 2017년 전망

주요 내용

- 2015년 12월 18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공급측개혁이 정식으로 발의됨에 따라 2016년에 공급측개혁의 5대 임무에 관한 정책이 시행됨.
 -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공급측개혁의 5대 임무(三去一降一補)는 △ 과잉생산설비 해소(去產能) △ 부동산 재고 해소(去庫存) △ 레버리지율 감소(去槓桿) △ 기업 원가절감(降成本) △ 유효공급 확대(补短板)임.
- 2016년 한 해 동안 공급측개혁의 5대 임무에 대한 성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과잉생산설비 해소 및 부동산 재고 해소 부문에서 모두 명확한 효과가 나타났으나, 뚜렷한 성과에 비해 일부 지표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기업 원가절감 부문은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중이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태임.
 - 레버리지율 감소 및 유효수요 확대 부문의 성과는 미미하나,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 2016년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는 2017년을 13.5 규획의 핵심 기간으로 간주하고 ‘공급측개혁 심화(深化)의 해’로 지정함.
 - 2017년에는 공급측개혁 5대 임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심화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제시될 것임.
 - 또한 농업분야의 공급측개혁, 실물경제 진흥,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1. 개요

- [공급측개혁 제기 배경] 중국정부는 2016년 한 해 동안 공급측 구조개혁에 주력함.
 - 공급측개혁은 2015년 11월 10일 중앙 재경 영도소조 제11차 회의(中央财经领导小组第十一次会议)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초로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방안이 마련됨.
 -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성장의 방향 및 관리방침을 수요측면에서 공급측면으로 전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공급측개혁을 제시
 - 이에 2015년 12월 18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공급측개혁이 정식으로 발의됨.
 - 회의에서는 2016년을 공급측 구조개혁에 진력하는 해로 지정하고, 주요 5대 임무로 △ 과잉생산설비 해소(去产能) △ 부동산 재고 해소(去库存) △ 레버리지율 감소(去杠杆) △ 기업 원가절감(降成本) △ 유효공급 확대(补短板)를 제시
 - 2016년 한 해 동안 총수요를 상황에 맞게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공급 시스템의 수준 및 효율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

- 공급측개혁의 5대 임무(三去一降一补)인 △ 과잉생산설비 해소(去产能) △ 부동산 재고 해소(去库存) △ 레버리지율 감소(去杠杆) △ 기업 원가 절감(降成本) △ 유효공급 확대(补短板)의 세부적인 목표 및 정책 실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잉생산설비 해소] 철강 및 석탄 산업 분야에서 부실기업의 청산 및 인력 배치 문제를 논의함.
 - 주로 철강 및 석탄 산업 분야의 과잉공급 해소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부실기업 청산 및 합병, 노동력의 재배치 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 [부동산 재고 해소] 부동산 관련 제도의 개혁을 통해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도시화율 제고 및 주택제도 개혁의 심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을 목표로 설정함.
 - 부동산 재고 해소를 위해서 농민공의 도시민화 및 도시화 정책이 핵심 방안으로 제기
 - [레버리지율 감소] 정부부문, 금융부문, 비금융부문에서 레버리지율 감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함.
 - 정부부문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감세 및 요금 인하, 지방정부 채무 관리 및 지방채 치환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금융부문에서는 대손충당금 비율의 하향조정, 부실채권 기반 자산담보증권의 발행, 구조화 금융상품 신규 출시 등의 방안이 제기
 - 비(非)금융부문에서는 좀비기업 청산, 출자전환, 신흥산업기업 지원 등의 방안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기업의 부실채권을 증권화 및 시장화함으로써 기업의 부실채권 비율을 낮출 전망
 - [기업 원가절감]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며, 각종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을 실시함.

- 기업 비용 절약의 핵심은 세금 감면혜택에 있으며, 영업세의 개혁을 통한 세금 감면 효과를 기대
- 그 밖에 제도적 거래비용 감소, 유통 및 물류 비용 감소, 산업용 전기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
- [유효공급 확대] 기초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발전 환경의 개선과 빈곤 구제, 농촌지역의 공급 확대 등이 주요 골자임.
- 주로 낙후된 지역으로 기초인프라 건설 투자를 집중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을 제고
- 특히 농촌지역 및 빈곤지역의 탈빈곤화를 위해 빈곤주민 이주정책 시행과 빈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표 1. 2016년 공급측개혁의 5대 임무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과잉생산설비 해소 (去产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및 석탄 산업에 대한 과잉공급 해소 - 시장화 발전에 따른 부실기업 청산제도 마련, 신속한 파산·청산 심사 진행 - 재정세무 지원 범위 확대, 불량자산 처리, 실업자 재취업 및 사회보장제도 마련 - 기업 합병 및 구조조정을 통한 과잉생산 해소
부동산 재고 해소 (去库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한 효과적인 부동산 수요 확대 - 공공 임대주택의 적용대상 확대 - 주택 장기임대 수요 형성 - 부동산 기업의 합병과 재편을 통한 구조조정 가속화
레버리지율 감소 (去杠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채무리스크 해소 및 지방채 치환사업 지속 추진,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방식 개선 - 은행 대손충당금 비율 조정, 부실채권 기반 자산담보증권 발행, 구조화 금융상품 출시 - 좀비기업의 청산, 기업 출자 전환, 신흥산업 기업 적극 지원 - 기업 부실채권의 증권화를 통한 부실채권 비율 감소 - 금융감독관리 강화 및 용자방식의 규범화를 통한 전문적인 금융리스크 관리
기업 원가절감 (降成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세 개혁을 통한 기업 납세부담 감소 - 제도적 거래비용 감소 - 5대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의 간소화 및 결합방안 모색 - 금리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여 실물경제 활성화 - 기업의 재무비용, 전기요금에 대한 가격개혁을 통해 기업 원가절감 - 유통체제 개혁 추진과 물류비용 절감
유효공급 확대 (补短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 지역의 기초인프라 건설 투자 증대 - 기업의 기술 및 설비 개선 지원, 기업의 채무부담 감소 - 빈곤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정책적 지원 및 빈곤지역 주민의 이주정책 실시 - 농산품의 효과적인 공급 보장, 식품안전 보장 - 농촌지역의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

자료: 「공급측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망」 표2 내용 추가 및 재정리.

■ 본고에서는 공급측개혁 5대 임무에 대한 1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2016년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 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 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 공급측개혁의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함.

- 2016년은 공급측개혁이 정식으로 실시된 첫 해인 만큼 지난 1년간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데 의미가 있음.
- o 본고에서는 2016년 중국경제의 거시적인 성과와 5대 임무의 부문별 성과를 통해 1년간 공급측개혁의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
- 한편 2016년 12월 개최된 2016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내용을 근거로 2017년 공급측개혁의 방향을 전망하고, 더 나아가 회의에서 새롭게 제시된 농업 공급측개혁, 실물경제 진흥, 부동산 증장기 발전, 등을 간략하게 논의

2. 2016년 평가

가. 거시경제 성과

■ 2016년 중국경제의 주요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느리지만 안정적인(缓中趋稳)’ 성장세를 보임.

- 2016년 제3/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6.7%로 3분기 연속 6.7%의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중국경제가 ‘안정에서 점차 호전되는(趋稳向好)’ 추세로 전향하고 있음.
- o 2016년 11월 제조업 PMI 지수는 최근 2년 내 가장 높은 51.7을 기록했으며, 12월에는 소폭 하락한 51.4를 기록
- o 공업 기업의 이윤율은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하여 2016년 들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 8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그림 1. 중국 GDP 성장률 추이(2013~16년 3/4분기)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6).

그림 2. 중국 PMI 지수 추이(2015~16년 12월)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6).

그림 3. 중국 공업기업 이윤 총액 및 이윤증가율 추이(2016년 2~11월)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6).

나. 개혁 부문별 성과

■ [과잉생산설비 해소(去产能)]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이 명확하고, 성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目标明确, 态度坚定).

- [석탄산업] 생산능력 감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기업 이윤을 또한 개선됨.
 - 2016년 10월 말 기준 2016년의 석탄 생산감소 목표치인 약 2.5억 톤을 감소하는 데 성공
 - 중국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말 기준 석탄산업 관련 기업 수는 2015년 12월에 비해 약 800여 개 감소한 5,591개, 석탄 관련 기업의 이윤율 또한 2016년 들어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11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56.9% 증가
 - 중국 최대 석탄산지인 산시성(山西省) 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생산량 감소를 위해 25개 탄광을 폐쇄(2016년 10월 기준)하고 약 2,325만 톤의 생산량을 감소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생산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¹⁾
- [철강산업] 철강산업 부문에서도 과잉생산 감소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국의 조강(粗钢) 재고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6년 10월 말 기준 생산량 감소 목표치인 약 4,500만 톤을 이미 달성, 이러한 목표치의 약 97%를 민간기업에서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3%를 국유 기업이 담당²⁾

1) 또한 기업인원 재배치 작업을 통해 석탄산업 부문 직원 약 1만 3,600명을 이미 다른 산업으로 재배치함. 생산관리 부문에서도 정리작업이 견실히 진행되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탄광사고 및 사망자 수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42.86%와 41.18% 감소함.

2) 대표적으로 2016년 8월 말 장시성(江西省) 핑강안원철강유한공사(萍钢安源钢铁有限公司)에서 420m²의 용광로 해체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장시성 철강산업의 과잉생산설비 문제가 해소됨. 또한 저장성 항저우철강그룹(浙江杭州钢铁集团公司)은 약 1만 2천여 명의 직원을 다른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재배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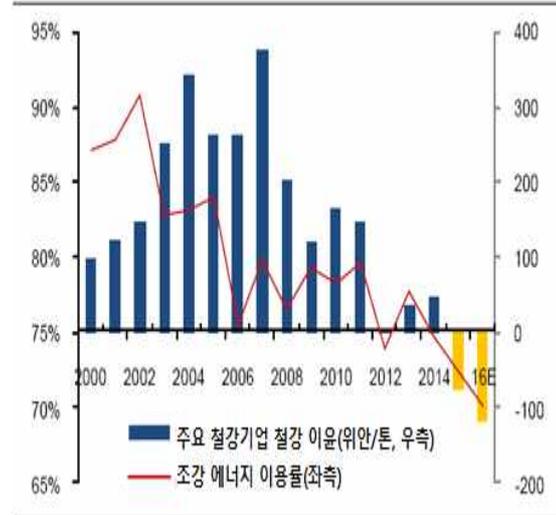
- 이러한 성과에 따라 전국 조강(粗钢) 재고량은 2016년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초에 비해 3/4분기에는 13.1% 감소
- 뿐만 아니라 조강 에너지 이용률도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 예측치 기준 과잉생산 기준점인 75% 수준 미만으로 하락한 70% 수준을 기록³⁾

그림 4. 중국 석탄기업 수 및 석탄기업 이윤증가율(2015년 12월~2016년 11월)



자료: 『海通证券研究所』(2016), 재인용.

그림 5. 중국 주요 철강기업 이윤 및 조강 에너지 사용률(2000~16년)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6).

■ [부동산 재고 해소(去库存)]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精准施策, 以人为本).

- 전국 상품방의 매물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재고량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함.
- 2016년 11월 말 기준 전국 상품방(매매가능한 모든 건축물)의 매물면적(全国商品房待售总面积)은 6.91 억 m²로 역대 재고량 최고 수준인 2016년 2월 말에 비해 0.48억 m² 감소했으며, 2016년 2월 이후 9 개월 연속 하락
- 상품방의 매물면적은 판매 목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주택 물량을 의미하며, 이 면적의 감소를 통해 부동산 재고량의 감소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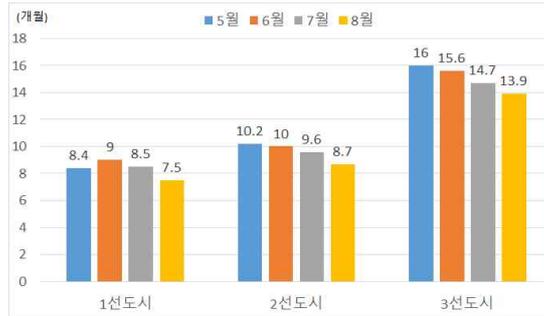
3) 「去产能这一年： 煤钢去产能目标超额完成」(2017), 『中国经济周刊』 p. 16.

그림 6. 전국 상용방 매출 면적
(2015년 12월~2016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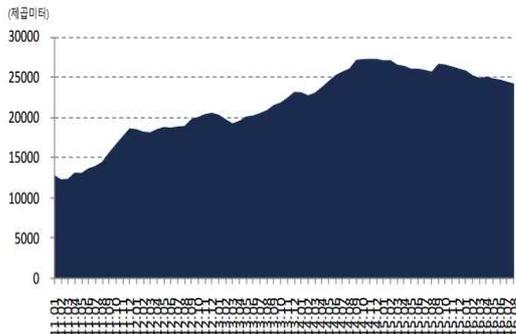
자료: 『国信房地产信息网』.

그림 7. 전국 35개 도시 신규주택 재고 소진주기
(2016년 5~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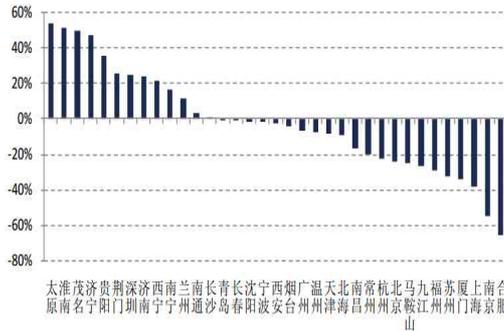
자료: 『易居研究院』(2016).

그림 8. 전국 35개 도시 신규주택 재고 총량 추이(2011~16년 8월)



자료: 『易居研究院』(2016).

그림 9. 전국 35개 도시별 신규주택 재고량 증감률(2016년 8월)



자료: 『易居研究院』(2016).

- 신규주택 재고량 역시 감소추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재고의 소진주기 또한 짧아지는 추세임.
- 상하이이취부동산연구원(上海易居房地产研究院)⁴⁾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전국 35개 도시의 신규주택 재고 총 면적은 2.43억 m²로 전년동기대비 5.7% 감소했으며, 2015년 8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
- 전국 35개 도시 중 22개 도시에서 신규주택 재고량이 감소했으며, 그중 허페이(合肥), 난징(南京), 상하이(上海)의 재고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각각 65.8%, 55.0%, 38.7%를 기록
- 1선도시의 신규주택 재고 소진주기는 2016년 5월에 8.4개월에서 6월에 9개월로 나타나 소폭 상승하였으나, 7, 8월 각각 8.5개월, 7.5개월 수준으로 다시 감소
- 2선도시와 3선도시의 신규주택 재고 소진주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8월 기준 각각 8.7개월, 13.9개월을 기록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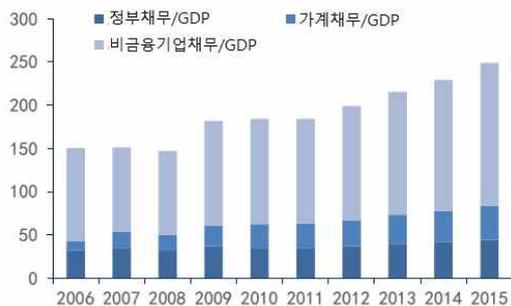
4) 『35城库存连跌13个月, 存销比开始回到五年前水平』(2016), 『易居研究院』(11月17日)

5) 1선도시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4개 도시이며, 2선도시는 장춘

■ [레버리지 감소(去杠杆)] 명확한 성과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穩妥有序, 守牢底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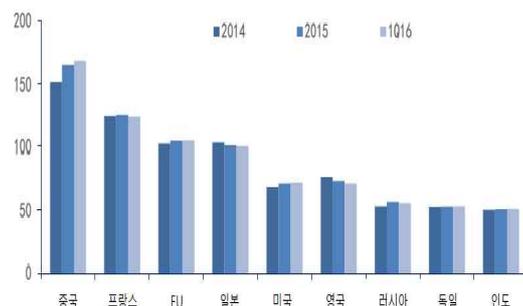
- [정부 및 가계 부문] 2016년 정부와 가계의 레버리지율은 2015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상태임.
 - 2015년 말 기준 중국정부의 레버리지율은 56.5%를 기록하였고, 2016년의 레버리지율도 60% 내외로 예측되나 이는 선진국(100% 내외)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가계 부문 역시 2015년 39.95% 수준을 기록하며,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 [기업 부문] 비금융 부문 기업 레버리지율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평가됨.
 - BIS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4분기 중국 총 부채비율은 254.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에 비해 25.5%p나 높은 수치
 - 특히 비금융 부문의 레버리지율은 169.1% 수준으로 최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100% 내외 레버리지율과 비교 시 높은 수준
 - 국유기업의 레버리지율은 2016년 2/4분기 65% 수준이었으며, 특히 중앙 국유기업의 레버리지율이 71.4%로 가장 높음.

그림 10. 최근 레버리지율 변화 추이(2006~15년)



자료: BIS, 民生证券研究院.

그림 11. 주요 국가의 비금융 부문 레버리지율 비교



자료: BIS, 民生证券研究院.

- [레버리지율 감소정책] 2016년 10월 이후로 4대 국유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은 기업의 레버리지율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대규모 채권-주식 전환정책을 실시함.
 - 4대 국유은행은 12월 26일까지 모두 16건의 채권-주식 전환 항목⁶⁾을 실시했으며, 규모가 공개된

(长春), 선양(沈阳), 톈진(天津), 타이웬(太原), 지난(济南), 칭다오(青岛), 난징(南京), 쑤저우(苏州), 항저우(杭州), Ningbo(宁波), 허페이(合肥), 난창(南昌), 창사(长沙), 푸저우(福州), 샤먼(厦门), 구이양(贵阳), 난닝(南宁), 시안(西安), 란저우(兰州), 시닝(西宁) 20개 도시, 3선도시는 화이난(淮南), 마안산(马鞍山), 지닝(济宁), 옌타이(烟台), 창저우(常州), 난통(南通), 윈저우(温州), 지우장(九江), 징먼(荆门), 마오밍(茂名), 베이하이(北海) 11개로 모두 35개 도시임.

11개 항목 총액이 1,620억 위안 규모를 기록

- 이는 2016년 10월 10일 국무원이 발표한 「기업 레버리지율의 적극적인 해소에 관한 의견(关于积极稳妥降低企业杠杆率的意见)」 및 「시장화 은행의 채권-증권 간 전환에 대한 지도 의견(关于市场化银行债权转股权的指导意见)」에 따라 시행된 정책이며, 채권의 주식 전환 이후 관련 기업의 채무 비율은 5~10% 하락할 것으로 기대

표 2. 4대 은행의 채권-주식 전환 정책 실시 현황

일시	은행	채무 전환 기업	산업 분야	전환 규모 (억위안)	전환 방식
2016. 10. 11	건설은행	우한철강그룹	철강	240	단계별 공동출자 2개 발전기금 설립
2016. 10. 16	건설은행	윈난주석집단유한책임회사	유색금속	100	기금 설립, 시장 모집
2016. 11. 2	건설은행	샤먼하이이집단유한회사	기계	50	권의 투자 등
2016. 11. 8	건설은행	광성자산경영유한회사	비은행금융	150	권의 투자 등
2016. 11. 9	건설은행	광저우교통투자그룹	교통운수	100	화폐 자금 등의 출자방식
2016. 11. 10	건설은행	충칭건축공학투자유한책임회사	건축설계	100	권의 투자 등
2016. 11. 14	건설은행	산둥에너지그룹	석탄	210	단계별 3개 기금 설립
2016. 12. 8	건설은행	산시초탄그룹	석탄	250	공동출자 기금 설립
2016. 12. 9	중국은행 외 5개 은행	중강그룹	철강	270	채권+전환채+조건부 전환채 혼합 방식
2016. 12. 9	공상은행	산둥황금그룹	유색금속	100	기금 설립
2016. 12. 14	농업은행	류즈광공그룹	석탄	-	기업 분할+채무재편+전환채 혼합 방식
2016. 12. 18	공상은행	지동발전집단유한책임회사	시멘트	50	유한공동기금 방식
2016. 12. 22	공상은행	칭하이염호공업주식유한회사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	-
2016. 12. 26	공상은행	다이웬철강유한회사	철강	-	-
2016. 12. 26	공상은행	다통탄광집단유한책임회사	석탄	-	-
2016. 12. 26	공상은행	양촨석탄산업유한책임회사	석탄	-	-

자료: 「中国经济周刊」 표 재인용.

■ [기업 원가절감(降成本)] 많은 정책의 시행으로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함(下真功夫, 见真效果).

- 감세를 통한 기업의 원가절감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정부의 재정 수입은 감소함.

- 6) 기존에 진행되었던 채권-주식 전환정책은 4대 AMC(금융자산관리공사)가 주도하여 진행되었던 방식이 었으나, 2016년 새롭게 시행된 정책은 4대 국유은행 주도로 각각 금융자산관리공사를 자회사로 설립 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었음. 실시 기업은 레버리지율이 높고 발전 잠재력이 높은 국유기업 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실시되었으며, 채권의 직접적인 주식 대체방식 외에도 △고리 단기채권을 저리 장기채권으로 전환 △일반 채권을 조건부 전환채권으로 교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우수 자금 투입 등의 방식 등 각 기업 및 은행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짐.

- 2016년 1~11월 기간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100위안당 영업수입 중 원가 비중은 85.76위안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0.14위안 감소함.
- 특히 2016년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영업세(营改增) 개혁’⁷⁾을 통한 전체 기업 감세 효과는 2016년 11월 말 기준 약 4,699억 위안 규모⁸⁾임.
- 중국국가세무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영업세 개혁을 통해 감세효과를 누린 기업은 전체의 약 98.7% 수준에 달하며, 불과 1.3%의 기업만이 증세 효과를 보임.
-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재정부는 2016년 9월 전국 일반 공공재정 수입이 8,243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0.7% 하락하였으며, 2015년 2월 이후 최초로 전년대비 하락했다고 발표함.
- 지역별로 기업 원가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한 이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광둥성에서 원가절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표 3 참고).
- 또한 장쑤성과 푸젠성의 경우 2016년 8월 기준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원가 비중은 각각 86.48위안, 86.88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25위안, 0.17위안 감소하여 원가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이 밖에도 장시성, 구이저우성, 산둥성, 톈진시 등에서 기업용 전기 사용에 대한 개혁정책을 통해 500억 위안 내외의 원가절감 효과를 보임.

표 3. 주요 지역별 기업 원가절감 성과 예측

성시	내용
장시성(江西省)	- 기업의 원가절감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이 구체화되거나 체계화됨에 따라 전체 성내 기업의 부채 약 680억 위안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 - 그중 장시성의 기업용 전기 직접조달 시범시행 정책의 원가절감 효과는 약 750만 위안으로 예측, 국가 특별자금 지원 항목에 의한 원가절감 효과는 약 5,000만 위안으로 예측
구이저우성(贵州省)	- 기업의 전력 사용, 물류, 용자, 세수, 교역비 절감 등을 위한 정책 실시로 누적 감세 500억 위안 규모 달성
산둥성(山东省)	- 전면적인 전력사용 체제 개혁을 통해 전력사용 비용을 통일했으며, 양로사회보험에 대한 기업 납부비율을 18% 인하함에 따라 약 4억 위안의 기업 부담 절감 - 일련의 정책 효과로 전체 기업의 원가 절감 효과는 500억 위안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장쑤성(江苏省)	- 8월 말까지 전체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100위안당 영업수입 중 원가 비중이 86.48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25위안 감소

7) ‘영업세 개혁’은 이른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营业税改增值税)’하는 정책을 일컫는 말로, 2011년 국무원 및 국가세무총국, 재정부가 공동으로 시범시행 방안을 제기한 이래, 2012년 1월 상하이 교통운송업, 현대 서비스업 부문에서 가장 먼저 시범 시행되었음. 이후 2012년 8월 전국 8개 성시로 확대 시범 실시되었다가, 2016년 5월 들어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 등 4개 부문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 부가가치세 전환은 단지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에 교부되는 세수로 기존의 영업세에 비해 분명한 감세효과가 있으며, 정부의 재정 적자폭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옴.

8) 이에 대해 12월 2일 재정부 부부장 스야오빈(史耀斌)은 영업세 시범지역 운영 현황 정책 브리핑에서 2016년 영업세 개혁의 전체 감세효과는 5천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함.

표 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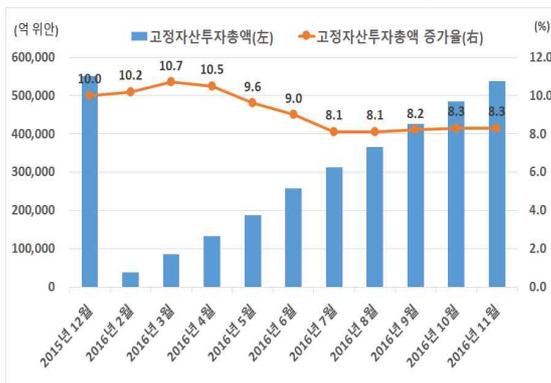
성시	내용
푸젠성(福建省)	- 2016년 8월 말까지 전체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100위안당 영업수입 중 원가 비중이 86.88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17위안 감소
광둥성(广东省)	- 2016년 말까지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약 4,000억 위안 규모로, 기업 종합비용은 2014년에 비해 5~8% 하락
텐진시(天津市)	- 두 차례에 걸친 기업 원가절감 정책 실시를 통해 기업의 원가부담을 각각 477.85억 위안, 107억 위안 절감할 것으로 예상

자료: 언론 자료 저자 재정리.

■ [유효공급 확대(补短板)] 기초인프라 건설 투자 증대 및 빈곤 구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함(抓关键, 补薄弱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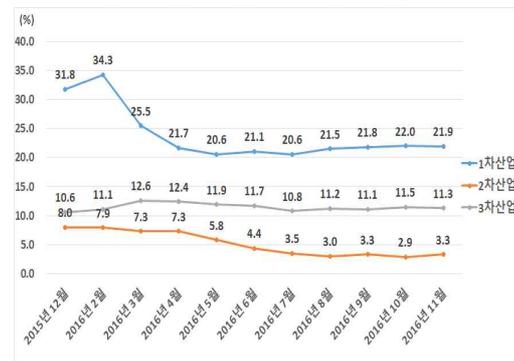
- [기초인프라 건설 부문] 2016년 11월까지 중국 전 지역에서는 유효공급 확대를 위해 농업 및 생태환경, 공공서비스, 수리(水利) 등의 부문에 기초인프라 건설 투자를 확대함.
- 2016년 11월 기준 중국 전 사회고정자산투자 총액은 53조 8,54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8.3% 증가
- 산업 부문별로 보면, 1차 산업 부문에 대한 고정자산투자 총액 증가 속도는 11월 기준 31.8%로 2차 산업(8%)과 3차 산업(10.6%) 부문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⁹⁾
- 이 밖에 생태환경(42.2%), 공공서비스(23.5%), 수리(20.2%) 등 기초인프라 건설 부문 투자의 증가 속도가 23.9%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그림 12. 중국 전 사회고정자산투자 총액 및 증가율 (2015년 12월~2016년 11월)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6).

그림 13. 산업 부문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2015년 12월~2016년 11월)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6).

9) 구체적으로 농업 부문에서 고정자산투자 총액의 증가가 명확히 나타나는데, 누적 9,21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1.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농·림·목축·어업 전체 고정자산투자 총액 또한 20.1% 증가함. 이는 제조업 부문의 고정자산투자 총액 증가치인 3.6% 수준과 건축업 부문의 -5.9%, 교통·운수업 부문의 11.7% 등에 비해 매우 빠른 증가 속도임.

- [빈민 구제 및 농촌 부문] 빈곤 구제 문제 및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는 여러 정책을 시행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6년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의 첫 해로 지정하여 탈빈곤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 2016년 중앙 및 성급 재정의 특별 빈곤 구제자금이 1,000억 위안 규모를 초과, 그중 중앙의 특별 빈곤 구제자금은 전년대비 약 43.4% 증가한 667억 위안, 성급의 특별 빈곤 구제자금은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한 400억 위안¹⁰⁾
- 지역별로는 구이저우시(贵阳市)에서 취약 부분인 빈곤 구제와 기초인프라 건설, 교육의료 등의 자본 투자를 증가했으며, 「생산 및 취업 지원을 통한 빈곤 구제의 실시에 관한 의견(关于扶持生产和就业推进精准扶贫的实施意见)」을 통해 우수산업 육성을 통한 빈곤 구제 및 빈곤촌에 대한 ‘하나의 농촌 하나의 특산품(一村一品)’ 정책¹¹⁾을 실시하고, 농촌 여행,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다. 종합 평가

■ 과잉생산설비 해소 및 부동산 재고 해소 부문에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남.

- [과잉생산설비 해소] 철강 및 석탄 산업 분야에서 과잉생산설비 감소가 나타남.
- 국가발개위 비서장 쉬쿤린(许昆林)은 “철강, 석탄의 과잉생산 축소는 공급측개혁의 핵심 분야이자 주된 목표이다”라고 강조
- [부동산 재고 해소] 전국적으로 부동산 재고량의 해소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
- 전국 부동산 재고량 및 상품방 매물, 신규주택 재고량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점차 재고량이 감소
- 특히 재고 소진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부동산 재고 해소의 정책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에 비해 일부 지표는 해당 부문의 우려를 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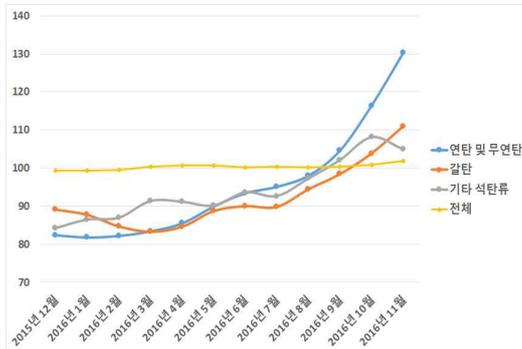
- [과잉생산설비 해소] 과잉생산설비 및 과잉공급량은 감소했으나, 이로 인해 최근 석탄 및 철강 부문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10) 이에 12월 20일 국무원 빈곤 구제 사무실의 류용푸(刘永富) 주임은「전국 빈곤구제개발공작회의(全国扶贫开发工作会议)」에서 2016년 전체 탈빈곤 농촌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2016년 10월 말까지 ‘빈곤 구제 거주지 이전 프로젝트’ 가동률은 99.4% 수준에 달해, 이로 인해 이미 46만 명의 빈곤계층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정착하고 있다고 밝힘.

11) ‘하나의 농촌 하나의 특산품(一村一品)’ 정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지는 농촌지역에 대해 하나의 촌 단위를 기준으로 각각의 환경과 조건에 맞는 상품의 생산을 전문화하는 방안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품에 대해 생산의 규모화·표준화·브랜드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매개로 활용하는 정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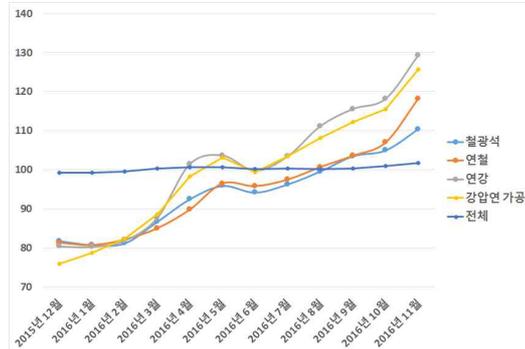
- 석탄 및 철광석 품목의 가격 상승 추세는 명확히 나타나는데, 2016년 11월 기준 연탄 및 무연탄의 생산자 가격지수(PPI)는 무려 130.2를 기록했으며, 갈탄의 PPI 지수 또한 110.9를 기록
- 2016년 11월 주요 광물의 생산자 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철광석 110.4, 연강 129.3, 강압연 125.7을 기록하며 가파른 가격 상승추세
- 사면대학 에너지경제 협동 혁신센터 린보창(林伯强) 주임은 “과잉공급 해소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생산량의 하락을 동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생산량의 대규모 하락은 필연적으로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우려를 제기
- 반면 발개위 주임 쉬샤오스(徐绍史)는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수요와 공급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격의 상승은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며, 경기의 안정과 수요의 증가와도 부합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

그림 14. 석탄 관련 산업 PPI 지수
(2015년 12월~2016년 11월)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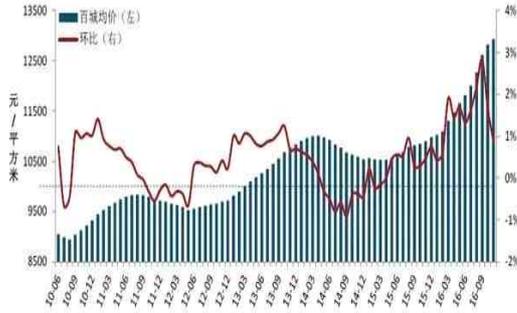
그림 15. 철강 관련 산업 PPI 지수
(2015년 12월~2016년 11월)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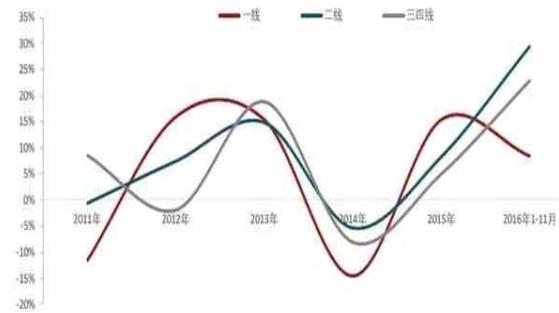
- [부동산 재고 해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으며, 특히 1·2선도시로의 집중현상이 심화됨.
- 전국 100개 도시의 주택매매 가격은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이후 가격안정 정책 이후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
- 최근 1선도시의 가격급등 현상이 2선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확대
- 2016년 11월까지 1선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22.95%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선도시 역시 매매 면적의 빠른 증가와 더불어 가격 상승률이 13.34%를 기록
- 이는 3·4선도시에 비해 1·2선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가파른 가격 상승은 다시 시장을 더욱 과열시킬 수 있음.

그림 16. 중국 100개 도시 주택매매 가격 변화 추이(2010년 6월~2016년 11월)



자료: CREIS, 『中国房地产市场2016总结与2017趋势展望』, 표 재인용.

그림 17. 중국 1, 2, 3선도시 부동산 매매 면적 증가율(2011~16년 11월)



자료: CREIS, 『中国房地产市场2016总结与2017趋势展望』, 표 재인용.

표 4. 중국 주요 도시 분류별 부동산 가격 추이 비교

도시 분류	2015년	2016년				
		1~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11월
100개 도시	4.15%	17.83%	2.94%	4.54%	6.78%	2.54%
1선 도시	17.20%	22.95%	7.02%	5.39%	7.24%	1.65%
2선 도시	-0.53%	13.34%	0.92%	4.37%	5.13%	2.36%
3선 도시	-1.09%	10.15%	1.93%	2.29%	3.51%	2.06%

자료: CREIS, 『中国房地产市场2016总结与2017趋势展望』 자료 재정리.

- 실제로 이취연구원 옌웨이진(严跃进) 싱크탱크 연구총감독은 “1·2선도시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재고 소진의 주기가 너무 낮아지는 현상 또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설명하는 근거이다”라고 경고
-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 판성저우(潘盛洲)는 “3·4선도시의 재고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농민공 정책 및 도시화 정책이 될 수 있으며, 농민공의 시민화 및 도시화의 가속화를 통해 새로운 부동산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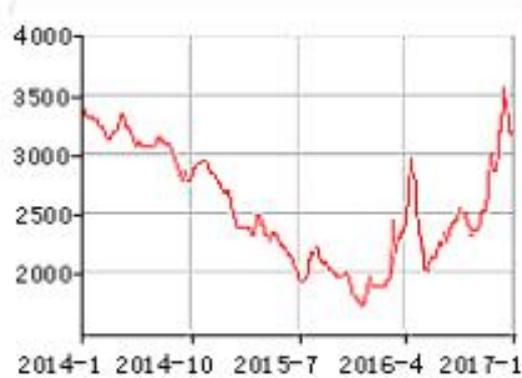
■ 기업 원가절감 부문은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중이나, 원자재가격의 상승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태임.

- 2016년 하반기부터 원자재가격의 상승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 2016년 12월 기준 생산자 가격지수(PPI)는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한 수치로, 11월에 비해서도 2.2%p 증가¹²⁾
- 중국 물류정보센터의 천중타오(陈中涛)는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기업이 생산 및 경영 비용이

12) 특히 원자재가격의 상승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는 가운데, 2016년 중반 이후부터 철강재의 가격뿐만 아니라 목재 가격 역시 2016년 2월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다소 가중될 것이며, 일부 기업은 생산량을 증대시켜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경제의 회복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

그림 18. 건축용 철강 가격 추세
(2014년~17년 1월)



자료: 中国钢材价格网(2017).

그림 19. 목재 가격 지수 변화 추이
(2016년 1~12월)



자료: 中国木材价格指数网(2017).

■ 레버리지 감소 및 유효수요 확대 부문의 성과는 미미하나,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 [레버리지 감소] 2016년 각 부문의 레버리지율은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기업 부문 레버리지 축소를 위해 채권-주식 전환정책이 새롭게 추진되어 효과가 기대됨.
 - 국가발개위 쉬샤오스 주임은 2017년 1월 10일 국무원 신문발표회에서 중국 전체 레버리지율은 중급 수준, 정부 및 가계 부문은 낮은 수준, 비금융 부문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
 -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율 감소의 과정에서 △ 법제화를 통한 질서 있는 개혁 △ 비금융 부문의 레버리지율 상승 억제 진력 △ 일부 기업의 악의적인 채무 회피 및 도피 방지 등을 핵심 사안으로 지적
 - 2016년 10월 10일부터 실시된 기업의 채권-주식 전환사업이 4대 국유은행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레버리지 감소효과는 5~10% 수준으로 기대
- [유효수요 확대] 2016년은 주로 기초인프라 투자 증대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도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함.
 - 유효수요 확대 부문에서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기초인프라 투자 측면에서는 낙후 지역 및 산업 부문에 빠르게 투입
 - 국가통계국 투자부 고급통계사 왕바오빈(王宝滨)은 “중서부 지역의 기초인프라 투자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철로, 농촌지역 도로공사, 논답 수리시설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투자로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제고에 효과를 볼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냄.
 - 하지만 모건스탠리 증권사의 수석 경제학자인 장쥔(章俊)은 과도한 기초인프라 투자에 대해 “정부의 임무가 안정적 성장에서 성장 촉진으로 변질되었다며, 이렇게 과도한 투자가 이어진다면 필경 인프라 투자의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평가

3. 2017년 전망

가. 공급측개혁의 심화

- [경제공작회의] 2016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이하 <회의>)가 개최, 2017년 주요 경제현안 및 경제운용 기조를 점검·논의함.
 - <회의>에서는 2017년을 13.5 계획의 핵심 기간으로 간주하고 ‘공급측개혁 심화(深化)의 해로 지정함.
 - 2016년은 공급측 구조개혁에 진력한 해였다면, 2017년에는 공급측개혁을 주 노선으로 설정하고 5대 임무(三去一降一补)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

- 공급측개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심화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함.
 - [과잉공급 해소] 2016년 정책 기조를 유지·확장하고, 지속적으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노력함.
 - 철강과 석탄 산업의 과잉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좀비기업의 처리 및 환경·에너지 소모·품질·안전 관련 표준을 제정할 방침
 - 또한 2016년 해소된 공급과잉 부문이 재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화·법제화를 통해 다른 산업 분야의 과잉공급도 해소할 예정
 - 이에 따라 2017년부터는 과잉공급 해소 부문의 주력 산업분야였던 철강, 석탄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시멘트 산업도 포함하여 4대 주력 산업으로 지정
 - [부동산 재고 해소] 지역별 상황에 맞는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며, 부동산 재고 해소와 도시화 정책의 결합 시행을 추진함.
 - 지역별 상황에 맞게 분류하고 통제하여 적합한 대책을 통해 3·4선도시의 부동산 재고 과잉을 중점적으로 해결
 - 부동산 재고 해소와 도시화 정책의 결합방안으로 △ 3·4선도시와 특대도시 인프라 연결 네트워크 강화 △ 3·4선도시 교육·의료·공공 서비스 수준 제고 △ 농업 이전 노동력 흡수 역량강화 등이 제기
 - [레버리지 축소] 기업(비금융) 부문의 레버리지율 감소를 핵심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기업 자체적 노력을 촉구함.
 - 전 사회의 총 레버리지율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특히 기업의 레버리지율을 감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
 - 또한 기업의 시장화 및 법제화에 기반한 채무-주식간 전환(债转股)을 지지할 것이며, 레버리지 축소를 위한 기업 자체적인 노력을 촉구
 - 정부 부문에서도 채권 발행 행위에 대한 규범화를 통해 레버리지율을 감소할 예정

- [기업 원가절감] 감세·비용 경감·요소비용 절감에 업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각종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내부적인 비용절감 및 효율 증대를 촉진함.
 - 2016년 시행된 영업세 개혁과 같은 감세정책 및 요소비용의 절감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 제도적 거래비용 경감 △ 행정 절차 간소화 △ 각종 증개 평가비용 감소 △ 기업 에너지 사용비 절감 △ 물류비용 절감 △ 노동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내부적인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유도
- [유효공급 확대]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 영역에 존재하는 제약과 대중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에 착수함.
 -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모두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것이며(既补硬短板也补软短板), 발전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부분 모두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既补发展短板也补制度短板)
 - 특히 빈곤 구제 업무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며, 사회 취약계층 및 탈빈곤에 대한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어질 전망

표 5. 2017년 공급측개혁의 5대 임무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과잉생산설비 해소 (去产能)	- 철강·석탄 산업 과잉 해소 지속 - 좀비기업 처리 강화 - 환경보호·에너지 소비·품질·안전 관련 법규·표준 엄격 집행 - 합병 및 구조재편 추진 조건 조성, 기업채무 처리 완전화 - 인력 재배치 최적화
부동산 재고 해소 (去库存)	- 지역 상황에 적합한 대책 시행 - 부동산 재고 해소와 도시화의 융합 추진
레버리지율 감소 (去杠杆)	- 전 사회 레버리지 감소 - 기업의 시장화·법치화 채무의 주식 전환(债转股) 지지 - 기업 자체 레버리지 약속 강화 - 정부 기채 행위의 규범화
기업 원가절감 (降成本)	- 감세·비용 경감·요소비용 절감에 업무 집중 - 거래비용(특히 제도성 거래비용) 절감 -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 물류원가 절감 - 노동시장 활력 제고 - 기업 내부 원가절감 노력 강화
유효공급 확대 (补短板)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부족 해소 - 발전 및 제도적 부문에서의 부족 해결 - 탈빈곤 추진을 위한 각종 업무 강화 및 취약 부문에 역량 집중 - 구빈 및 탈빈곤 추진을 위한 각 정책조치의 뿌리 정착

자료: 『2016年中央经济工作会议公报』 내용 정리.

나. 농업 공급측개혁

■ [배경] 2016년 이래로 농업 공급측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식적으로 2017년 농업 공급측개혁이 주요한 경제 목표로 설정됨.

- 농업 공급측개혁(农业供给侧改革)의 개념은 2015년 12월 중앙 농촌공작회의(中央农村工作会议)에서 처음으로 제기됨.
- 2016년 중앙 1호 문건¹³⁾에서 “농업 공급측개혁을 추진하고, 농업 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¹⁴⁾이라고 제시하고, 2016년 12월 9일 정치국 회의에서 “농업 공급측개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¹⁵⁾고 재차 강조
- 또한 2016년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새로이 농업 공급측개혁도 2017년 경제 부문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언급

■ [제기 배경] 현재 중국이 직면한 농촌의 주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 공급측개혁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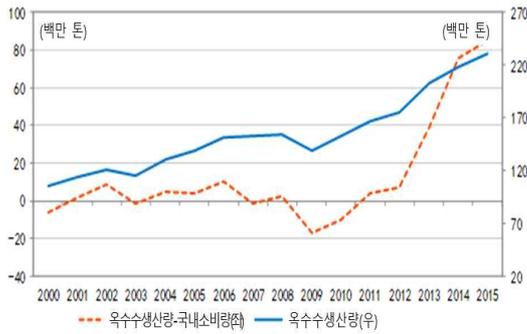
- 농업 부문의 주요 4대 문제는 △ 환경오염에 따른 농산품의 안전성 문제 △ 일부 농산품에 존재하는 심각한 수급 불균형 문제 △ 토지 유통제도의 제약 및 농촌 노동력의 이동 제약 문제 △ 농산품 생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임.
- 첫째, 경작지 감소, 지하수 남용, 과잉투자, 화학비료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해 농업 부문에서 환경 오염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산품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
- 둘째, 옥수수과잉 같은 공급과잉 농산품 문제, 또는 대두와 같은 공급부족 농산품 문제 등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
- 셋째, 농촌 인구의 대거 도시 유입으로 인한 토지의 소유와 운영 주체의 불일치, 농촌 노동력 부족 현상 등의 문제가 심화
- 넷째, 농업 노동력 임금 및 토지 사용료 등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국내 농산품 생산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농산품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문제점 발생

13) 중앙 1호 문건(中央一号文件)이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매년 첫 번째로 발행하는 문건임. 2016년 중앙 1호 문건에서는 ‘신 3농 문제(“三农”新难题)’를 비롯하여, 처음으로 농업 공급측개혁이 제기되었음.

14) 「推进农业供给侧结构性改革，加快转变农业发展方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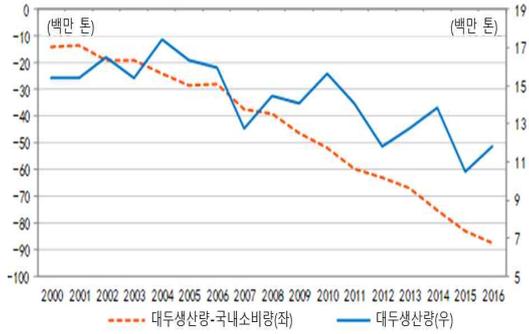
15) 「要积极推进农业供给侧结构性改革」.

그림 20. 국내 옥수수 생산량 및 재고량 추이 (200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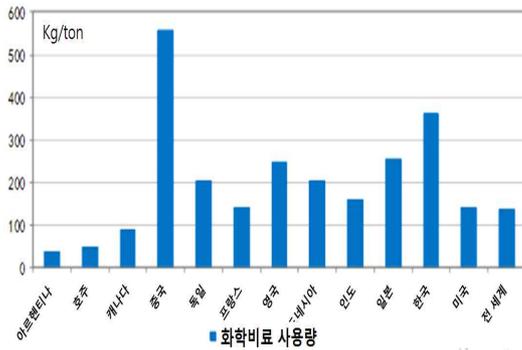
자료: Wind, 兴业研究

그림 21. 국내 대두 생산량 및 재고량 추이 (200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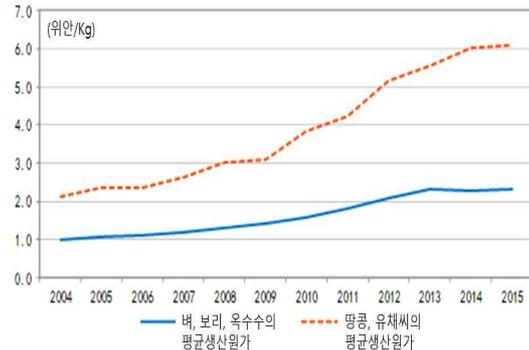
자료: Wind, 兴业研究

그림 22. 주요 국가 연간 화학비료 사용량(2013년)



자료: World Bank, 兴业研究

그림 23.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추이 (2004~15년)



자료: Wind, 兴业研究

■ [주요 정책 실시방안] 상기한 4가지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각각의 정책적 해결방안이 다음과 같이 제기됨.

- 주요 4대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 △ 농업 녹색발전 추진 △ 옥수수 재고량 축소 △ 농촌 토지제도 개혁의 심화 △ 농촌 기초인프라 건설 완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농업 녹색발전 추진은 농산품의 질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산품 표준화 생산 및 브랜드 개발, 품질안전 감독 관리체제 개선 등 방안이 제기되었으며, 농촌환경 보호를 위해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제로 운동, 농업 폐기물 재사용 방안 및 완전처리 방안 등이 논의
- 옥수수의 재고량 축소는 (과잉생산량에 대한) 기존의 정부 구매정책대신 시장거래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연스럽게 생산량 감소를 유도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결
- 농촌 토지제도의 개혁을 위해 경영권 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농촌 토지에 대한 세금 징수 및 집체 경영형 건설용지의 시장화, 주택용지제도 개혁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

- 농촌의 기초인프라 건설 증대는 기존 공급측개혁의 ‘유효공급 확대(补短板)’ 정책과도 부합하며, 농업발전, 수리 시설확충, 빈곤 구제 등에 있어 여전히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

다. 기타 관련 정책

- [실물경제 진흥] 자금의 단기 유동화 현상에 대응하여 2017년에는 실물경제를 진흥시킴으로써 자금이 실물경제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임.
 - 구체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핵심경쟁력 제고, 혁신에 의한 발전 등을 견지하고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공급을 확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과 신기술을 활용한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외자도입의 확대 등에 관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대해 신랑재경(新浪财经)은 “실물경제 진흥은 2017년 공급측개혁 성공에 있어서 핵심 임무 중 하나”라고 보도함¹⁶⁾.
-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발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지역적 양극화에 대응하여 국정과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임.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혁, 유동인구에 근거한 토지공급 제도 도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버블,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예방할 것임.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공급측개혁의 부동산 재고 소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재고 소진과 관련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버블 압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됨.

16) 「供给侧结构性改革深化之年：都是难啃的硬骨头」(2016), 『新浪财经』, (12月28日)

[참고자료]

- 「今年已推14条去杠杆措施」. 2016. 『东南商报』. (8月27日)
- 「前8个月基建投资同比增19.7% “补短板”效应明显」. 2016. 『证券日报』. (9月14日)
- 「35城库存连跌13个月, 存销比开始回到五年前水平」. 2016. 『易居研究院』. (11月17日)
- 「数据揭示供给侧结构性改革降成本成效显现」. 2016. 『经济日报』. (12月5日)
- 「专家: 2016年去产能之路喜忧参半 明年还需适当优化」. 2016. 『经济参考报』. (12月7日)
- 「供给侧结构性改革聚合中国经济“澎湃动力”」. 2016. 『南方网』. (12月8日)
- 「2016年经济发展回眸: 供给侧, 改革攻坚见实效」. 2016. 『人民日报』. (12月13日)
- 「供给侧改革这一年 去产能目标提前且超额完成」. 2016. 『上海证券报』. (12月14日)
- 「中央经济工作会议召开: 供给侧改革不可能轻而易举」. 2016. 『经济日报』. (12月14日)
- 「供给侧结构性改革牵引中国经济爬坡过坎」. 2016. 『央视网』. (12月14日)
- 「供给侧结构性改革深化之年: 都是难啃的硬骨头」. 2016. 『新浪财经』. (12月28日)
- 「供给侧改革攻坚年 2016十大经济热词都与你相关」. 2016. 『新华社』. (12月14日)
- 「发力供给侧结构性改革之去产能篇: 真去真退 有力有效」. 2016. 『经济日报』. (12月14日)
- 「发力供给侧结构性改革之去库存篇: 分类调控 精准精细」. 2016. 『经济日报』. (12月15日)
- 「2016年供给侧改革“成绩单”出炉: 五大任务并进」. 2016. 『中国经济网』. (12月16日)
- 「2016经济发展亮点频现: 补短板 改革破解民生难题」. 2016. 『人民日报』. (12月16日)
- 「发力供给侧结构性改革之去杠杆篇: 综合施策 有扶有控」. 2016. 『经济日报』. (12月19日)
- 「发力供给侧结构性改革之降成本篇: 负担轻了 活力增了」. 2016. 『经济日报』. (12月17日)
- 「房地产去库存加快 35城商品房存销比接近历史低位」. 2016. 『中国广播网』. (12月21日)
- 「细说农业供给侧改革: 问题、挑战和措施」. 2016. 『兴业研究』. (12月21日)
- 「中国房地产市场2016总结与2017趋势展望」. 2017. 『中国指数研究院』. (1月4日)
- 「去产能这一年: 煤钢去产能目标超额完成」. 2017. 『中国经济周刊』, 第1期 (1月4日)
- 「企业降杠杆, 市场化债转股初具规模」. 2017. 『民生证券研究院』. (1月11日)
- 「2015年中央经济工作会议公报」.
- 「2016年中央经济工作会议公报」.
- 귀신부동산소식망(国信房地产信息网) 사이트 <http://www.realestate.cei.gov.cn>
- 중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 사이트 <http://www.stats.gov.cn>
- 중국 목재 가격지수망(中国木材价格指数网) 사이트 <http://www.yuzhuprice.com>
- 중국 철강재 가격망(中国钢材价格网) 사이트 <http://www.zh818.com>
- Wind Economic Database 사이트 <http://www.wind.com.cn>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공급측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9, No. 1. (2月3日)
- _____. 2016. 『중국의 공급과잉해소 정책 추진 현황 및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9, No. 6. (5月13日)
- _____. 2016. 『중국의 부동산재고 소진 정책 추진 현황 및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9, No. 7. (5月31日)
- _____. 2016. 『중국의 레버리지 축소 정책 추진 현황 및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9, No. 8. (5月31日)
- _____. 2016.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17년 중국경제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9, No. 17. (12月23日)

자료 정리: 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김현수 (ohdolssibaby@naver.com)